BTS 지민, '제주도 여행 사진' 올렸다가…엄청난 파급효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4650252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제주도에 여행 갔다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왔다.지난 연말 지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주도 여행 중 찍은 사진을 올렸다. 긴 코트와 비니, 마스크로 눈만 드러났지만 누가 봐도 지민임을 알 수 있었다. 이후 해당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졌고 제주 누웨마루 거리라는 게 알려지며 방문객이 급증했다.누웨마루 측은 해당 포토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한정 이벤트였던 행사 기간을 연장해 관광객들의 관심에 화답했다.행사 관계자는 "누웨마루 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민 포토존을 준비했다"면서 "BTS 팬인 그라피티 작가와 일러스트 작가의 참여로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민이 앞서 공개한 사진 속 제주 ‘스누피 가든’ 역시 한국관광공사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난 상태다.한 네티즌은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에 빗대 "지민 언제 내한했나" 등의 반응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방탄소년단이 전국 팔도에 나눠 살면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 가격 집중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듯"이라며 웃지 못할 댓글을 남겼다. 각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일상을 공개하고 나선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현재 장기휴가를 만끽하고 있다.

BTS, ‘버터’로 미 디지털음원 판매 1위…톱텐 중 4곡 차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574699

빌보드-MRC 데이터 연간 보고서‘톱 디지털 송 세일즈’에 4곡 올려방탄소년단이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트로피를 거머쥐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빅히트뮤직 제공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버터’로 2년 연속 미국 디지털 음원 판매 1위를 차지했다.빌보드와 MRC 데이터가 6일(현지시각) 공개한 ‘2021년 미국 음악시장 연간 보고서’를 보면, ‘버터’는 지난해 다운로드 188만9천건을 기록해 ‘디지털 송 세일즈’ 부문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2020년 ‘다이너마이트’(126만 건)에 이어 2년 연속 ‘100만 다운로드’ 기록을 이어갔다.방탄소년단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영어 싱글 ‘버터’는 댄스 팝 장르 곡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통산 10주 동안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역사에서 10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곡은 ‘버터’를 포함해 40곡뿐이다.디지털 송 세일즈 순위. 빌보드 공식 홈페이지또 지난해 미국에서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된 디지털 음원은 ‘버터’가 유일하다. ‘버터’ 판매량은 2위에 오른 워커 헤이즈의 ‘팬시 라이크’에 견줘 3.8배에 이르렀다.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곡 ‘퍼미션 투 댄스’는 40만4천건으로 디지털 음원 판매 3위에 올랐고, ‘다이너마이트’는 30만8천건의 판매를 기록하며 6위를 차지했다.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곡 ‘마이 유니버스’도 7위(28만7천건)에 올라 방탄소년단은 ‘디지털 송 세일즈’ 상위 10위권에 4곡이나 이름을 올렸다.방탄소년단은 2020년 연간 보고서에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7>으로 실물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앨범 판매 부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룹 블랙핑크. YG엔터테인먼트 제공이번 연간 보고서는 미국 음악 시장 흐름을 분석하며 케이(K)팝을 비중 있게 다뤘다. 보고서는 케이팝 소비가 차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언급했고, 블랙핑크 멤버 리사·로제의 솔로 활동과 트와이스의 영어 싱글 등도 소개했다.

BTS '버터' 지난해 300만장 팔려…6년 연속 앨범차트 정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12904739

연간 가온차트 발표…아이유 디지털·스트리밍 1위-임영웅 다운로드 1위   
그룹 방탄소년단(BTS)[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영어 싱글 '버터'(Butter)가 지난해 300만 장 가까이 팔리며 가온차트 연간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다. 7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운영하는 가온차트에 따르면 BTS의 '버터'는 작년에 총 299만9천407장이 판매돼 연간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다. 앨범 차트는 국내에서 발매되는 음반의 국내외 판매량을 집계해 순위를 매긴다. 음반 도매상을 기준으로 LP, CD, 카세트테이프 등의 출하량에서 반품량을 제외한 수치를 판매량으로 본다. 음콘협은 "BTS는 지난해 단 한 차례 발매한 '버터'가 연간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6년 연속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며 "연간 리테일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BTS는 판매량이 400만 장을 넘은 음반에 부여하는 '쿼드러플 밀리언'(Quadruple Million) 인증을 받은 유일한 그룹이다. 앞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과 미니 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가 4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 가온차트의 '쿼드러플 밀리언' 인증을 받았다. 연간 앨범 차트 2위와 3위는 NCT 127, NCT 드림이 각각 차지했다. NCT 127의 정규 3집 '스티커'(Sticker)는 지난해 242만7천559장이 팔렸으며, NCT 내 또 다른 유닛(소그룹)인 NCT 드림의 정규 1집 '맛'은 209만7천185장이 판매됐다.   
가온차트 2021년 앨범 차트 [가온차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지난해 디지털 음원과 스트리밍 차트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이유가 1위의 영광을 안았다. 아이유의 '셀러브리티'(Celebrity)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BGM 판매량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집계한 연간 디지털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 곡은 스트리밍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다운로드 부문에서는 가수 임영웅이 정상을 차지했다. 임영웅이 부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사랑은 늘 도망가'는 연간 차트에서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한편 2011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발매된 앨범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BTS는 3천278만3천223장의 판매고를 올려 누적 판매량 3천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NCT(1천577만3천729장), 엑소(1천444만3천618장), 세븐틴(1천20만1천354장) 등 대표적인 K팝 보이그룹 세 팀이 누적 판매량 1천만 장의 기록을 달성했다. 걸그룹 중에서는 트와이스의 누적 판매량이 729만9천94장으로 가장 많았다. yes@yna.co.kr

‘다이너마이트-버터 연속흥행’…BTS, 미국 디지털음원 2년 연속 1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374&aid=0000270792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연합뉴스)]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를 미국에서 연달아 흥행시키며 2년 연속 미국에서 디지털 음원 판매량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와 MRC 데이터는 현지시간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한 미국 음악시장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터'는 지난해 약 188만9000건 다운로드되며 '디지털 송 세일즈'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를 기록한 워커 헤이즈의 '팬시 라이크'의 49만9000건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BTS는 지난 2020년에도 '다이너마이트'가 126만 건 다운로드되며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밖에도 순위권에 오른 BTS의 발표곡이 많았습니다. '퍼미션 투 댄스'가 40만4000건 다운로드로 3위, 다이너마이트는 2021년에도 30만8000건의 판매량으로 6위를 기록했고,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도 28만7000건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BTS, 2년 연속 美 음원 판매 1위…톱10에만 무려 4곡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6&oid=016&aid=0001934775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버터(Butter)’로 주류 음악시장을 녹였다. 이 곡이 2021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디지털 음원으로 꼽혔다. 방탄소년단으로서는 2020년 ‘다이너마이트(Dynamite)’에 이어 2년 연속 미국 시장 장악이다.6일(현지시간) MRC 데이터가 발표한 2021년 연간 보고서(이하 2021 MRC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버터’는 약 189만 건 다운로드, ‘톱 디지털 송 세일즈(TOP DIGITAL SONG SALES)’ 1위에 올랐다.MRC 데이터는 2021년 1월 1일~12월 30일 미국 내 실물 앨범(CD, LP 등) 판매 및 디지털 다운로드, 오디오 스트리밍 등 음악 관련 수치와 트렌드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리포트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음원 판매량은 매년 감소해 2019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넘은 곡은 단 한 곡뿐이었다. 2020년 ‘톱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를 차지했던 ‘다이너마이트’가 126만 건 다운로드 됐고, 2021년 유일하게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넘긴 곡이 바로 ‘버터’였다.방탄소년단은 ‘2021 톱 디지털 송 세일즈’ 순위에 무려 4곡을 올려놨다. ‘버터’뿐 아니라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도 3위에 올랐다. 지난해 1위를 차지한 ‘다이너마이트’는 6위에 올랐고, 방탄소년단이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곡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도 7위를 차지했다.미국 음악 전문매체 빌보드 역시 2021 MRC 연간 보고서를 분석한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은 2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디지털 음원을 보유한 그룹”이라고 강조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총 103만 장의 실물 앨범(CD)을 판매, ‘2021년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아티스트’ 1위에 올랐다.

BTS-U.S. album sales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903964

BTS tops digital song sales for 2nd consecutive year in U.S. SEOUL, Jan. 7 (Yonhap) -- K-pop superstar BTS has grabbed the honor of having the most sold digital song of the year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second time. "Butter" was the most sold digital song of the year in the country with 1.89 million downloads sold, according to an annual year-end report released jointly by MRC Data and Billboard on Thursday (U.S. time). In 2020, the group's "Dynamite" was the top seller with 1.26 million sold. The summery disco-pop song was released in May as the group's second English-language song and stayed 10 non-consecutive weeks atop the Billboard Hot 100 chart. Including "Butter," only 40 songs have achieved the feat in Billboard history.A photo of South Korean boy group BTS provided by Big Hit Music. (PHOTO NOT FOR SALE) (Yonhap)Coming in a distant second place in the year-end ranking was "Fancy Like" by Walker Hayes, which sold 499,000 downloads. "Butter" was the only song that sold more than 1 million downloads in the country last year. The South Korean group showed a strong presence in the digital song sales category. It took four of the top 10 posts, with "Permission to Dance" in third with 404,000 downloads; "Dynamite" in sixth with 308,000 downloads; and "My Universe," a collaboration single with British rock band Coldplay, in seventh place with 287,000 downloads. BTS topped the top-selling physical album list with its fourth full-length album "Map of the Soul: 7" in 2020 but failed to hit the list last year. sshim@yna.co.kr(END)

아이유, 가온차트 2관왕…BTS·임영웅도 빛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6&oid=003&aid=0010932033

[서울=뉴시스] 아이유. 2022.01.05.(사진 = 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가수 아이유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트로트가수 임영웅이 지난해 가온차트를 빛냈다.7일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 따르면, 아이유 '셀러브리티'는 2021년 연간 가온차트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디지털·스트리밍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 '버터'는 앨범차트 1위,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다운로드차트 1위다.셀러브리티는 주간 가온 디지털·스트리밍차트에서 6주 연속 1위를 이어갔다. 발매 후 현재까지 디지털차트 톱50 내 랭크 돼 있다.방탄소년단은 6년 연속 앨범차트 1위를 차지했다. 연간 리테일 앨범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 2020년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으로 가온 인증 이래 최초로 쿼드러플 밀리언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미니앨범 '맵 오브 더 소울'도 쿼드러플 밀리언 인증을 받았다. 쿼드러플 밀리언 앨범 인증을 받은 그룹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2021년 11주차 가온차트에서 디지털·다운로드·BGM·벨소리·컬러링차트에서 1위 해 5관왕을 차지했다. 이후 5주 연속 주간 다운로드차트 1위를 유지했다. 소셜차트2.0에서는 2021년 42주차부터 현재까지 12주 연속 4위를 유지하고 있다. 남성 솔로가수 중 가장 높은 성적이다.

BTS, 日 베스트 앨범 판매 100만장 돌파…보아 이후 16년 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81&aid=0003242936

“해외 남성 아티스트로는 퀸 이후 17년 만”그룹 방탄소년단이 100만장 이상 판매한 일본 베스트 앨범. 빅히트 뮤직 제공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일본에서 발표한 베스트 앨범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장을 넘어서며 또 한 번 기록을 세웠다.6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주간 앨범 랭킹’ 최신 차트에 따르면 ‘BTS, 더 베스트’ 음반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 주간 3000장 판매됐다. 이를 반영한 누적 판매량은 총 100만 2000장으로, ‘주간 앨범 랭킹’ 차트 기준 100만장 이상 팔린 14번째 해외 아티스트가 됐다.BTS의 이번 기록은 2003년 보아 이후 처음이다. ‘아시아의 별’ 보아는 2003년 일본에서 발표한 2집 ‘발렌티’(VALENTI)와 2005년 베스트 앨범 ‘베스트 오브 솔’(BEST OF SOUL)이 각각 100만장 이상 팔려 밀리언셀러에 오른 유일한 한국 가수였다.BTS는 2019년 일본에서 발표한 싱글 ‘라이츠/보이 위드 러브’(Lights/Boy With Luv)가 100만장 이상 출하돼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밀리언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100만장을 넘어섰다.오리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BTS의 소식을 전하며 “앨범 부문에서 해외 아티스트가 밀리언(100만장) 기록을 달성한 것은 보아 이후 16년 7개월 만”이라며 “해외 남성 아티스트가 발표한 앨범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기록한 것은 2004년 밴드 퀸(Queen) 이후 17년 9개월 만”이라고 덧붙였다.오리콘 집계 기준으로 단일 앨범이 100만장 이상 팔린 해외 남성 아티스트는 마이클 잭슨, 본 조비, 스캣맨 존, 비틀스, 퀸 등이다.‘BTS, 더 베스트’는 2017년부터 약 4년간 일본에서 낸 싱글과 앨범 수록곡 등을 모아 발표한 앨범이다. 일본 오리지널 곡과 기존 히트곡의 일본어 버전 등 23곡이 실렸다.

‘BTS, 더 베스트’ 앨범 日서 100만장 넘게 팔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404327

17년만에 ‘밀리언셀러’ 해외가수작년 6월 발매… 히트곡 등 23곡 수록그래미시상식 연기… 오미크론 여파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이 지난해 6월 중순 일본에서 발매한 ‘BTS, 더 베스트(THE BEST)’ 앨범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었다. 일본 음반시장에서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 이상인 해외 가수가 나온 건 보아 이후 17년 만이다. 6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주간 앨범 랭킹’에 따르면 더 베스트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3000장이 팔려 누적 판매량이 100만2000장으로 집계됐다. 앞서 보아가 2003년 일본에서 발표한 2집 ‘발렌티(VALENTI)’와 ‘베스트 오브 솔(BEST OF SOUL·2005년)’ 앨범이 각각 100만 장 이상 팔렸다. 해외 남성 가수가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건 2004년 퀸 이후 18년 만이다. BTS의 더 베스트 앨범은 2017년부터 4년간 일본에서 낸 싱글과 앨범 수록곡을 모아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는 ‘필름 아웃’, ‘유어 아이즈 텔’을 포함한 일본 오리지널 곡과 기존 히트 곡의 일본어 버전 등 23곡이 수록됐다. 지난해 6월 발매 첫 주에만 78만2000장이 팔려 당시 주간 앨범 랭킹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일본에서 판매된 모든 앨범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기도 하다. 한편 BTS가 후보에 오른 미국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연기됐다. 올해 그래미 어워즈는 이달 31일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일정을 미뤘다. 새 일정은 추후 발표한다. BTS는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CES 2022 현장에서] BTS 노래 맞춰 ‘칼군무’ 추는 로봇 개 스팟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243&aid=0000021040

자율주행 네비게이션 능력 갖춰 장애물도 가뿐히 극복정의선 회장 "미래엔 휴대폰처럼 스팟 데리고 다닐 것" 방탄소년단(BTS) 노래와 함께 로봇 개 스팟이 벌떡 일어섰다. 스팟 세 마리가 네 다리를 폴짝거리면서 ‘칼 군무’를 선보였다. 손짓을 표현하듯 길쭉한 머리를 부드럽게 움직이기도 했다. 5일(현지시간) CES 2022 현대자동차 부스는 스팟의 공연을 보려는 관객으로 북적였다. 공연을 마친 스팟을 관객에게 다가가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부스에 마련된 언덕을 가뿐하게 넘는 등 실제 반려동물 같은 모습을 보였다. 스팟은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성능을 갖춰 스스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 스팟은 하루 전날에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스팟과 함께 발표회 연단에서 등장하면서다. 정 회장은 “언젠가 사람들이 휴대전화처럼 스팟을 데리고 다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팟은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인수한 미국 로봇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영은 기자 kim.yeongeun@joongang.co.kr

BTS, 일본서 2004년 퀸 이후 첫 100만장 판매 돌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6&oid=016&aid=0001934135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이 열도를 장악했다. 해외 남성 아티스트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6일 오리콘이 발표한 ‘주간 앨범 랭킹’ 최신 차트(1월 10일 자/집계기간 2021년 12월 27일~2022년 1월 2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매된 ‘BTS, 더 베스트(BTS, THE BEST)’는 차트 집계기간에 3000장이 판매됐다. 앨범의 누적 판매량은 100만 2000장으로 집계 됐다.오리콘은 “해외 남성 아티스트가 앨범의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기록한 것은 2004년 밴드 퀸(Queen) 이후 17년 9개월 만”이라고 밝혔다. 고승희 기자

BTS 꿈의 무대도 일단 멈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6&oid=081&aid=0003243118

오미크론으로 그래미 또 연기, 선댄스는 비대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오는 31일(현지시간) 예정된 제64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이 연기됐다.AFP 연합뉴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미국에서 열리는 음악 및 영화 시상식 일정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그래미 작년에도 3월에 ‘지각 시상’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후보에 오른 미국 최고 권위 음악상인 그래미 시상식이 2년 연속 연기됐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1일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옛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개최하려던 제64회 시상식을 연기한다고 밝혔다.레코딩 아카데미는 “LA시와 캘리포니아주 당국자, 보건·안전 전문가, 아티스트들, 많은 파트너와 함께 신중히 고려하고 분석한 끝에 시상식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오미크론 변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31일 시상식을 여는 것은 위험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일정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오는 31일(현지시간) 예정된 제64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이 연기되면서 2년 연속 후보에 올랐던 방탄소년단(BTS)도 출국을 취소했다.빅히트 뮤직●BTS, 美로 출국하려다 취소그래미 시상식은 지난해에도 팬데믹 여파로 1월 31일에서 3월 14일로 날짜를 옮겨 진행했다. 이 시상식에서 BTS는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한국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같은 부문에서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BTS는 장기 휴가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시상식 연기로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AP통신은 레코딩 아카데미가 그래미 시상식 새 일정을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장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시상식 개최지로 예정된 크립토닷컴 아레나는 프로농구팀 두 곳과 아이스하키팀 한 곳이 사용하는 시설로 경기 일정을 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미국 최대 독립영화 축제 선댄스 영화제는 비대면 상영으로 전환했다.AFP 연합뉴스●美 최고 독립영화축제도 차질 불가피미국 최고의 독립 영화 축제 선댄스 영화제도 이날 시사회 등 모든 대면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 행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영화제는 엄격한 방역 지침을 적용해 오는 20일부터 열흘 동안 유타주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행사를 모두 열 계획이었다.주최 측은 성명에서 “예상외로 높은 전염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의료 안전을 한계 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완전한 하이브리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해 실망스럽지만 관객들은 대담한 신작 영화와 XR(확장현실) 작업, 새로운 스토리텔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도 선댄스 영화제는 코로나19 탓에 온라인 상영을 병행했다.앞서 할리우드비평가협회(HCA)도 오는 8일 예정됐던 제5회 필름어워즈 시상식을 2월 28일로 조정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3개 부문 후보에 오른 제27회 미국 크리틱스초이스협회(CCA) 시상식도 9일로 계획한 행사를 미루고 새 일정을 조율 중이다. AP통신은 “그래미 연기는 오는 2월 미국 배우조합상(SAG)과 3월 아카데미상 시상식 일정 조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버터'에서 영감...도부마스크, BTS 마스크 출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4&aid=0000072504

지난해 연말 BTS 초상권 계약을 마친 도부마스크가 새해 '방탄소년단 아트워크 마스크(ARTWORK MASK)'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출처 도부마스크 지난해 연말 BTS 초상권 계약을 마친 도부마스크가 새해 '방탄소년단 아트워크 마스크(ARTWORK MASK)'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곡 'Butter'를 모티브로 한 마스크로 BTS 멤버 별 7가지 컬러로 나온다.회사 관계자는 "방탄소년단 아트워크 마스크(ARTWORK MASK)는 고성능 MB필터와 함께 착용자의 호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에어스루 필터를 적용했다. 착용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마스크 안감도 더마테스트(피부자극테스트)와 비건인증을 받은 안감을 사용해 피부자극도 최소화 했다. 또한 마스크에 라텍스 코패드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착용 편의성을 더욱 높인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회사 측은 이번 디자인 시안이 최종 확정돼 제품 생산에 돌입한 만큼 1월 중으로 도부마스크 온라인 자사몰부터 신제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변조 방지 위해 QR코드 정품인증 기술 도입 회사측은 세계 최초로 마스크에 QR코드 정품인증 기술을 도입해 제품의 위변조 방지, 짝퉁제품 유통 방지에도 공을 들였다고 덧붙였다. 구매자와 사용자는 QR코드 인증을 통해 공식 제품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QR코드를 찍으면 BTS 콘텐츠 감상도 가능하다. 한편 도부마스크는 지난해 12월 20일 빅히트 뮤직과 방탄소년단의 초상권을 사용한 마스크류에 대한 글로벌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韓流］ＢＴＳ　米国でのデジタル音源販売が２年連続１位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904059

【ソウル聯合ニュース】米ビルボードとＭＲＣデータが６日（現地時間）に公開した２０２１年米音楽市場年間報告書によると、韓国の人気グループ、ＢＴＳ（防弾少年団）のヒット曲「Ｂｕｔｔｅｒ」の昨年のダウンロード数が約１８８万９０００件に上り、「デジタルソングセールス」部門１位を記録した。ＢＴＳ（ビッグヒットミュージック提供）＝（聯合ニュース）≪転載・転用禁止≫　昨年５月にリリースした「Ｂｕｔｔｅｒ」は米ビルボードのメインシングルチャート「ホット１００」で通算１０週１位獲得の大記録を打ち立てた。同チャート史上、１位獲得が１０週以上の楽曲は「Ｂｕｔｔｅｒ」を含め４０曲しかない。　デジタル音源販売で「Ｂｕｔｔｅｒ」はほかの曲を大きく引き離し、高い人気を証明した。「Ｂｕｔｔｅｒ」の音源販売は２位のウォーカー・ヘイズの「Ｆａｎｃｙ　Ｌｉｋｅ」（４９万９０００件）の３．８倍に達する。　昨年、米国では唯一、「Ｂｕｔｔｅｒ」がダウンロード数１００万件を超えた。ＢＴＳは２０２０年の「Ｄｙｎａｍｉｔｅ」（１２６万件）に次いで２年連続でダウンロード数１００万件の記録を達成した。　デジタル音源部門では特にＢＴＳの人気が際立つ。昨年７月にリリースした「Ｐｅｒｍｉｓｓｉｏｎ　ｔｏ　Ｄａｎｃｅ」は４０万４０００件で音源販売量３位、「Ｄｙｎａｍｉｔｅ」は３０万８０００件で６位をそれぞれ記録した。　また、ＢＴＳと英ロックバンド、コールドプレイのコラボレーション曲「Ｍｙ　Ｕｎｉｖｅｒｓｅ」（２８万７０００件）が７位に入り、「デジタルソングセールス」トップ１０にＢＴＳの曲が４曲ランクインした。　報告書は米音楽市場を分析し、１ページにわたりＫ―ＰＯＰを取り上げた。Ｋ―ＰＯＰの消費が「チャートの新たな里程標になった」とし、ＢＴＳが昨年「ホット１００」で１位を獲得した曲が「Ｂｕｔｔｅｒ」「Ｐｅｒｍｉｓｓｉｏｎ　ｔｏ　Ｄａｎｃｅ」「Ｍｙ　Ｕｎｉｖｅｒｓｅ」の３曲に上ると説明した。　また、韓国のガールズグループ、ＢＬＡＣＫＰＩＮＫ（ブラックピンク）のメンバー、リサとロゼのソロ活動、ＴＷＩＣＥ（トゥワイス）の英語シングルなども紹介した。 hjc@yna.co.kr

BTS 음악에 칼군무 추는 로봇…360도 회전묘기 보이는 퍼스널모빌리티(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901709

현대차, 美 'CES 2022'서 메타모빌리티·MoT 구현 애플리케이션 선봬춤추는 것도 가능한 로봇 개(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2' 이 개막한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내 마련된 현대차그룹 전시관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의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2.1.6 jieunlee@yna.co.kr (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 'CES 2020'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 웨스트홀 현대차 부스에 로봇개 '스팟' 3마리가 들어섰다. 이들 로봇은 방탄소년단(BTS)의 '아이오닉 : 아임 온 잇'이 흘러나오자 아이돌그룹처럼 '칼군무'를 선보였고, 관객석에선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칼군무 추는 로봇개 '스팟'[촬영 김보경]이어 마치 SF영화에 나오는 캡슐처럼 생긴 퍼스널모빌리티가 조이스틱 조작만으로 360도로 회전하며 부스 안을 종횡무진으로 움직였다. 유원지의 놀이기구가 연상됐다. 직육면체 몸체에 바퀴 4개가 달린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는 울퉁불퉁한 바닥은 물론 계단도 수평을 유지하며 오르내렸다. 4개의 바퀴를 제각각 다른 높이와 각도로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모베드는 마치 장난꾸러기 아이와 같았다.미국 'CES 2022' 현대차 부스[촬영 김보경] 이날 개막한 CES 전시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곳곳이 비어있었지만 4면이 통유리로 둘러싸인 현대차 부스는 초입부터 눈에 띄었다. 모든 구조물이 모듈화되는 미래를 형상화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부스 안도 자동차 대신 미래 로보틱스를 상징하는 전시물들로 가득 찼다. 이중 '현실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의미를 담은 '리얼리티존'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로지스틱스 모빌리티 등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PnD 모듈)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과 '드라이브 앤 리프트 모듈'(DnL 모듈)을 탑재한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가 전시돼 있었다. 또 4족 보행 로봇개 '스팟'과 2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도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사족보행 로봇 '스팟'[촬영 김보경]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바로 전날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제시한 '메타모빌리티'(로보틱스+메타버스)와 'MoT'(Mobility of Things)를 그대로 구현한 느낌이었다. 다만 시연회가 시작되기 전까진 자동차가 아닌 로봇회사의 전시장에 온 기분도 떨칠 수 없었다. 시연회는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다'라는 주제로 왜 로보틱스가 모빌리티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모든 사물에 이동성을 부여하는 'MoT'를 구현하는 PnD 모듈과 DnL 모듈은 이번 전시의 핵심이었다. PnD 모듈은 인휠 모터와 스티어링, 서스펜션, 브레이크 시스템, 환경 인지 센서를 하나의 구조로 결합한 일체형 모빌리티로, 크기와 개수와 관계없이 사물에 이동성을 부여한다는 목적을 지향한다.퍼스널 모빌리티 [촬영 김보경]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한 것이 목적기반빌리티(PBV) 퍼스널 모빌리티로, PnD 모듈 4개가 탑재된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람 한 명이 탑승해 기어나 페달 없이도 조이스틱으로 조작이 가능했다. 단순히 조이스틱만으로 360도 회전은 물론 좌우상하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스팟 댄스 퍼프먼스에 이어 관람객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같은 모듈이 탑재된 서비스 모빌리티와 로지스틱스 모빌리티는 서랍처럼 수납공간이 열리고 닫히는 형태로, 물건을 나르는 경우에 최적화된 모습이었다.모베드[촬영 김보경] DnL 모듈 기반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도 4개의 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부스를 돌아다녔다. 모베드에 적용된 DnL 모듈은 구동과 조향, 브레이크 시스템이 하나의 구조로 결합됐으며, 이에 따라 각 휠에 장착된 모터가 몸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가능했다. 아울러 차체를 원하는 기울기로 조절할 수 있어 기울어진 경사나 울퉁불퉁한 면도 수평을 유지하며 오르락내리락했다. 4개의 바퀴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 꼭 분리된 별도의 다리 4개를 보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 모베드가 상용화되는 2024년이 기대됐다.현대차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2' 이 개막한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내 마련된 현대차그룹 전시관에서 관람객과 취재진이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MobED)의 시연을 보고 있다. 2022.1.6 jieunlee@yna.co.kr 전날 정 회장이 제3의 공간으로 제시한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존'도 부스에 차려졌다. 가상공간 같이 꾸며진 체험관 안에서는 기자의 얼굴과 체형을 본뜬 캐릭터가 등장해 쉴 새 없이 기자에게 말을 걸었다.현대차에서 로봇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현동진 로보틱스랩 상무는 "모베드는 4개의 다리와 4개의 바퀴가 같이 적용된 '휠드-레그드'(Wheeled-Legged) 개념으로, 다리만 달린 스팟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거친 노면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2 CES' 현대차부스의 메타버스존 [촬영 김보경] 이어 "(로봇은) 모듈화를 통해 공용화를 하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추는 것이 양산의 가장 큰 과제"라며 "정교한 매니퓰레이션을 통해 진보된 기술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BTS 멤버 뷔가 부른 OST, 빌보드 ‘핫 100′ 올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664712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부른 SBS 월화드라마 ‘그해 우리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인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드라마 OST가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빌보드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24일 공식 발매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번 주 핫 100 차트에서 79위에 올랐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지난해 12월 6일 첫 방송된 드라마 첫 회에서 주인공 최우식(최웅 역)의 작업실에서 흘러나온 LP 음반 곡으로 등장해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BTS 음악에 칼군무 추는 로봇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901812

(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켄벤션센터(LVCC)에서 개막한 'CES 2022' 전시장 내 현대차 부스에서 로봇개 '스팟' 3마리가 방탄소년단(BTS) 음악에 칼군무를 선보이고 있다. 2022.1.6 vivid@yna.co.kr

BTS, 세븐틴, TXT 업은 하이브…4분기 영업이익 최대 전망-IBK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693216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4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콘서트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를 성공적으로 마친 방탄소년단은 오는 11월 27~28일, 1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SoFi) 스타디움에서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 오프라인 공연을 개최, 새로운 투어 시리즈를 이어간다. 마지막 회차 공연(12월 2일)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예정이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전문 공연장 '유튜브 시어터(YouTube Theater)'에서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를 실시간 생중계로 즐길 수 있는 유료 오프라인 이벤트 'LIVE PLAY in LA'도 마련된다. / 사진제공 = 빅히트뮤직 /사진=김창현 기자 chmt@IBK투자증권이 하이브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 목표주가를 50만원으로 유지했다. 방탄소년단(BTS)의 오프라인 공연 재개, 팬 플랫폼 '위버스'의 월 이용자수(MAU) 확대 추세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서다.7일 이환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0.2%, 32.4% 상승한 4067억원, 736억원으로 추정했다.이 연구원은 "지난해 10월에 발매된 '세븐틴'의 미니9집 판매량은 200만장을 넘어섰고 신예 '엔하이튼'의 정규 1집 판매량도 100만장을 넘어서며 데뷔 1년 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며 "지난해 11월 재개된 BTS의 LA 공연 총 티켓 판매량은 21만장에 달했으며 북미 기준 단일 공연장 매출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했다.이어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등의 온라인 콘서트와 BTS의 '인더숲' 시리즈 등이 더해져 콘텐츠 매출액 상승을 견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대표 아티스트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대체불가능 토큰(NFT) 상품 출시 등의 신사업 본격화가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연구원은 "올 1분기 게임과 웹툰 런칭을 시작으로 오는 2분기 말 NFT 상품 출시까지 대표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신사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며 "NFT 상품은 포토 카드오 한정판 디지털 음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팬덤 기반 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신사업의 성공을 속단하긴 이르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팬덤을 확보한 만큼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너마이트-버터 연속흥행’…BTS, 미국 디지털음원 2년 연속 1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374&aid=0000270792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연합뉴스)]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를 미국에서 연달아 흥행시키며 2년 연속 미국에서 디지털 음원 판매량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와 MRC 데이터는 현지시간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한 미국 음악시장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터'는 지난해 약 188만9000건 다운로드되며 '디지털 송 세일즈'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를 기록한 워커 헤이즈의 '팬시 라이크'의 49만9000건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BTS는 지난 2020년에도 '다이너마이트'가 126만 건 다운로드되며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밖에도 순위권에 오른 BTS의 발표곡이 많았습니다. '퍼미션 투 댄스'가 40만4000건 다운로드로 3위, 다이너마이트는 2021년에도 30만8000건의 판매량으로 6위를 기록했고,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도 28만7000건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